

캠페인 자료집

사형제도

AMNESTY
INTERNATIONAL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국제앰네스티를 찾아주세요.
www.amnesty.or.kr

사진: 이란의 테헤란에서 마지드 카보
시파(Majid Kavousifar)와 조카인 호세
인 카보시파(Hossein Kavousifar)가 교
수형을 당하고 있는 장면.
(2007년 8월 2일)

© Private

AMNESTY
INTERNATIONAL



사형제도

극단적 형벌

매일마다 지구 곳곳에서는 많은 사형수들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목과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교화와 재할'보다 '복수와 응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제도는 이들의 생명을 날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 AP Photo/Halasz



이란의 마스하드에서 5명이 공개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 (2007년 8월)

사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전기의자, 교수형, 가스처형, 참수형, 투석형, 총살형에서 독극물 주사까지, 사형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가와 상관없이 사형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서 존재할 여지가 없는 폭력적인 형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형제도는 존재합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도의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가혹한 형벌보다 범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형은 종종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인종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소수 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많이 적용됩니다. 사형선고와 집행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사형제도가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저항을 잠재우는 신속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입니다. 인간의 실수, 편견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은 사법제도 내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Index: ACT 50/005/2008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을 반대하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인권침해입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개인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제3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5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07년에 다시 한번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 강화했습니다. 2007년 12월 유엔 총회는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형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형은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반응하게 하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형은 희생자 가족의 고통에 대해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뿐이며, 사형을 선고 받는 이의 가족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확장시킵니다.

사형은 폭력적인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낭비합니다. 사형은 폭력적인 문화의 한 단면일 뿐, 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그러므로 사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세계는 국가에 의한 사법 살인인 사형 제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래로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모든 범죄 또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130개 이상의 국가에는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사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소수의 국가에서만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할 것
-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선택의정서를 포함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모든 국가가 비준할 것
-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모든 국가들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 배제를 명시한 국제적인 의무를 따를 것

“
사형은 폭력적 문화의 단면이지,
그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알아보기

- 최근 사형 폐지국과 유지국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www.amnesty.org/en/death-penalty www.amnesty.or.kr 로 접속하세요.
-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캠페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www.worldcoalition.org 에 접속하세요
- 세계 사형반대의 날인 10월 10일에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amnesty.or.kr



과연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할까?

진실에 다가서기

오해

사형은 폭력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진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폐지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결과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 당 5.71 건인데 비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 당 4.02 건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 후인 2003년의 강력 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1975년에 비해 오히려 44%까지 감소했습니다. 사형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사회를 잔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무력 사용과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

사형은 마약관련 범죄를 억제한다.

진실

2008년 3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장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록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만, 저는 마약 때문에 살인을 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형은 오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 4월, 인도네시아의 헌법소원 재판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한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사형은 마약 밀매라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법원에 증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중국, 이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싱가포르 역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는 것이 장기간의 징역형 보다 더 강력한 억제 기능을 한다는 어떠한 명백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살인과 같은 폭력적인 범죄를 덜 저지를 것이다.

진실

위와 같은 논리는 범죄자들이 체포된 후의 결과를 미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예측한 뒤에,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징역형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범죄가 순간의 충동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체포되어 조사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받게 될 처벌이 현재의 범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형은 심지어 더 큰 폭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강제조치입니다. 한 번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을 중죄를 저지르고 나면 이들은 앞으로 줄일 형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형을 선고 받은 무장 강도는 도망치기 위해 교도관을 살해하는 등의 추가 살인을 저질러도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해

사형이라는 위협은 효과적인 테러 예방 전략이 된다.

진실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육체적 위협에 노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거의 혹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형집행은 오히려 종종 이들이 속해있는 집단에 대한 홍보가 되어 오히려 환영 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형집행이 되고 나면 이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순교자들'이 새롭게 양산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이용하여 테러를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5년 11월 이라크는 반 테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테러에 대한 모호한 정의만 내린 채 수많은 테러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심지어 인명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수십건이 넘는 사형집행이 이 법과 다른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

사형은 다수의 대중이 지지하는 이상, 유지되어야 할 올바른 제도이다.

진실

국제앰네스티는 법률을 제정하는 각 국가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률은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인권침해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노예제도, 인종 차별, 린치행위, 이러한 일들 모두는 당시 사회에서 널리 지지 받았지만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인권보호에 앞장서서 유권자들에게 왜 사형과 같은 국가에 의한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에 대한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욕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형에 대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중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될 때 사형을 지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미국 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석방 없는 중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될 경우 사형 지지율이 65%에서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해

사형은 폭력적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다.

진실

사회는 비용 절감이라는 기준으로 폭력을 용인하고 인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결정이 경제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내려져서는 안됩니다.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지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지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사형

사형은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자주 범죄행위 이면에 있는 진정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는 사형을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은 복잡합니다. 훈련이 잘되고 좋은 장비를 갖춘 경찰을 보강하거나, 빈곤을 퇴치하고 교육을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주 범죄 이면에 있는 진정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사형이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옹호합니다.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범죄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의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은 범죄문제와의 싸움에서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1988년에 마지막 교수형 집행이 있었던 자메이카의 경우, 두 주요 정당이 치솟는 살인 범죄율 때문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살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7년, 약 260만 명의 인구에서 1,57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단순히 누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범죄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2006년 자메이칸 옵저버 신문(Jamaican Observer)의 한 논설위원은 “우리 의원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롭고 창조적인 대안을 찾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며 사형에 대한 지루한 논쟁 벌이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위직 경찰관들도 사형 집행을 재개해서 자메이카의 범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무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메이카 경찰청 차장인 마크 쉴드(Mark Shield)는

“내 경험에서 볼 때, 폭력적인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국가가 당

신을 죽일 수도 있다(사형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시간낭비이다. 이들은 그리 오래 살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어차피 경찰관의 손에 죽거나 다른 범죄자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고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형을 통해서 범죄를



© AP Photo

미국 일리노이주 폰티악 교정시설의 복쪽 사형수 등에서 한 사형수가 밖을 보고 있다. 2003년 1월 일리노이 주지사 조지 라이언은 일리노이주의 사형제도 운영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모든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시켰다.

Index: ACT 50/007/2008



줄이겠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 다시 또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위직 경찰관의 51%가 폭력적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약물오남용 방지와 실업률 감소를 꼽은 반면, 1%에 불과한 이들만이 사형 집행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남아프리카 자유전선당(Freedom Front Plus)의 대변인은 “남아프리카에서 매년 18,0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000명의 살인자가 매우 적은 수의 경찰관들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형을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경찰관 수를 늘리는 일이 범죄를 줄이는데 더 생산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사형제도를 재도입하자는 요구가 한 정치 지도자에 의해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1996년 남아프리카의 국민들이 치솟는 범죄율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형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가 이렇게 허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른 것은 사형선고를 억제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형선고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범죄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과제는 치안당국이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우리 역시 치안당국이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공공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치안서비스에 있는 것인지 사형제도 폐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형제도와 범죄억제력에 관한 논란 속에서 정치인들은 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폭력이나 폭력의 악순환,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중이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때 그 해답이 또 다른 폭력, 즉 살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형은 시민보호와 범죄예방같이 진짜 효과가 있는 까다로운 해답 대신 선택되는 간편한 정치적 대안이다.

또 사형은 야망있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권자에게 비춰지고 싶을 때 택하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이 반 루엔(1991년 남아프리카) 그의 책 “The criminal judge and the death sentence : some observations on the views of Mr Justice Curtewis”에서

더 알아보기

전 세계 각국의 사형에 관한 최신 자료는

www.amnesty.or.kr 또는 www.amnesty.org를 방문해주세요.



비밀리에 이뤄지는 사형집행

많은 정부들이 사형집행을 은폐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사형제도와 같은 진정한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AP



비디오테이프로 촬영된 이 장면은 중국 푸키엔 지방에서 사형수들을 공개처형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92년)

많은 정부들은 범죄를 통제하는 데에 사형이 필수적이라고 적극적으로 내세우곤 합니다. 이들은 사형을 통한 위협이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나중에 자신이 처형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정부들은 막상 사형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형집행은 전적으로 비밀에 부쳐져 사형수들과 가족들은 아무런 공지도 미리 받지 못하다가 사형이 집행되기 몇 시간 전에서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연간 사형집행 건수 같은 정보는 국가기밀로 분류됩니다. 더구나 이 국가들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유엔의 요청을 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대중들은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며 이 때문에 사형과 같은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공의 토론이 억제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만약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형을 통해서서는 어떠한 억제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싱가포르의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지만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 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사형을 포함해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사형에 관한 어떠한 실질적인 대중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사형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모순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그 억제력 때문에 범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들은 억제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형집행 현황을 최대한 대중에게 알리고자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만이 비밀리에 사형

Index: ACT 50/008/2008



일본 도쿄에서 한 경찰관이 교도소 밖에 서 있다. 일본에서 사형집행은 보통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사형수는 집행 날짜를 당일에 가서야 알게된다.

© AP Photo/Chikari Tsukumo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몽골과 북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사형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발표해야만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각국 정부가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수
- 실제 사형집행 건수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투명성 대신 비밀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은 사형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은 공공의 토론으로 가속화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정부가 대중의 토론을 억압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중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의 잔인함은 더욱 대중의 주목을 받아야 하며 토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의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사형제도 운영에 관한 투명성 결여는 결국 대중의 논의를 가로막는다. 때로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2006년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라?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사형집행은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는가?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그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가해자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피해자 가족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에 대해 느끼는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논리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본래 사형이 지닌 극단성과 잔인성은 현대 사회의 문명화된 행동 규범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적절하고 용납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피해자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형 옹호론자들은 폭력적인 범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형을 찬성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살인 피해자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랑했던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권을 위한 살인 피해자 가족모임(Murder Victims' Families for Human Rights)이라는 단체는 사형에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야말로 사회가 살인과 같은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말로 사회에 일관성 있는 인권 윤리를 요구할 만한 도덕적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위한 살인 피해자 가족모임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1972년 시어머니를 살인사건으로 잃은 마리 단스(Marie Deans)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유가족은 범죄와 죽음, 이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가족이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복수는 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어야지 또 다른 죽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지, 가해자를 죽여서 또 다른 슬픈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운운하며 사형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은 사형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형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교도관

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외상, 처형된 사형수들의 가족과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이 겪을 감정적인 고통, 의뢰인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는 변호인들 그리고 혹시 남모르게 이 모든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 유권자들에게 사형의 '이점'을 주장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은 쉽게 묵살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사형이 사형수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조니 웨이너(Jonnie Waner)는 말합니다. 그녀는 오빠인 래리 그리핀(Larry Griffin)을 사형장에서 잃었습니다. 래리 그리핀은 1995년 미국 미주리 주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형은 너무 많은 피해자들을 낳습니다.”

“
사회가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말라'라고 대답한다.”

마리 단스(Marie Deans) 살인 피해자

Index: ACT 50/009/2008



보상금 아래 놓인 생명

몇몇 국가에서 특히,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등의 국가에서는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면해줄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다이아(diya, 피 묻은 돈)라고 알려진 경제적인 보상을 받거나 다른 적당한 물건을 받고 사형을 면제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별 다른 조건 없이 사형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 묻은 돈'은 사형집행 전에 결정되고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의 명목으로 지불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사형집행을 매우 자의적,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이 덜 너그러우면 사형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가족의 일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되지 않습니다. 넉넉한 돈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자 유가족을 거액으로 유혹해 '피묻은 돈'을 받아들이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적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가해자가 적절히 처벌받는 것을 지켜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사법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현대 법체계의 핵심 원칙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 76세 시각장애인인 클라렌스 레이 앨런(Clarence Ray Allen)의 사형집행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클라렌스는 23년간 사형수로 살았으며 2006년 1월 17일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다.



‘인도적인’ 살인

과연 ‘인도적인’ 사형집행 방식이 존재하는가?

전기의자, 교수형, 총살, 독가스형, 투석형 등과 같이 다양한 처형방법 중에서 독극물 주사는 ‘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사형에 과연 인도적인 방식이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됩니다.

사형제도는 국가로 하여금 국제법에 의해 가장 강력하게 비난받는 행위를 저지르게 합니다. 국제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법제도에서는 계획적이고 냉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하지만 사형이야말로 그 어떤 살인보다도 더 계획적이고 냉혹한 살인입니다. 사형은 사형수에게 물리적인 형태의 고문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 인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 중 인도적이거나, 잔인하고 모욕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사형집행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사형수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려는 식의 접근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형을 존치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능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이 ‘기능적인’ 접근법은 사형집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보다 사형수가 죽는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강조하려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형집행 방식에 제각각 문제점이 많고, 사형수에게 장시간의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총살, 교수형, 참수형의 경우에도 사형수가 즉각적으로 죽지 않아 추가적으로 형을 재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섬뜩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몇몇 정부는 현대적인 살인방법이라면서 독극물 주사로 사형 집행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1998년 2월 10일, 과테말라는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독극물 주사를 사용했습니다. 사형수는 마누엘 마르티네즈 코로나도(Manuel Martinez Coronado)였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시 사형집행 담당자들은 사형수의 부인과 아이들이 우는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형수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데 필요한 선들을 연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독극물 주입이 중단되기도 했고, 결국 사형수가 사망하기까지 총 18분이 걸렸습니다. 마누엘이 처형당하는 끔찍한 장면은 국영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집행 중 많은 수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저지른 살인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엔젤 디아즈(Angel Diaz)는 2006년 12월 13일 독극물 주사로 형이 집행되었는데, 사망하기까지 34분이나 걸렸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당시 그는 20분이 넘게 움직이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번째 주사가 필요했고, 그 후에야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신변 보호를 위해) 의사 엔젤 디아즈가 사망했다고 선고했습니다.

미국은 약 30년 전에 처음으로 독극물 주사를 사용한 사형집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1982년 처음 사용되던 당시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

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900명에 가까운 사형수가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고, 결국 독극물 주사는 전기의자, 교수형, 독가스형, 총살형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대체했습니다. 미국이 법적으로 사형집행방식에 독극물 주사를 도입한지 20여년 후, 중국, 과테말라, 필리핀(필리핀은 2006년 6월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대만, 태국도 독극물 주사를 도입했습니다.

독극물 주사는 세 가지 치명적인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펜토탈 나트륨(sodium pentothal), 근육 마비를 야기하는 브롬화 판큐레니움(pancuronium bromide), 심장을 멈추게 하는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이 그 세 가지 성분입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은 양의 펜토탈 나트륨이 투여되면, 마취 효과는 빠르게 없어지고 사형수는 심장이 멎을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을 표현해내거나 알릴 수도 없습니다.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의 안락사를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치명적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브롬화 판큐레니움을 애완동물 안락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미국 수의사 협회 지침상 허용이 되지 않으며 몇몇 주에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텍사스에서는 2003년 9월 고양이와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기 위해 브롬화 판큐레니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었



과테말라의 첫번째 독극물 주사를 사용한 사형집행 현장, 의료진이 마누엘의 사형집행을 보조하고 있다. (1998년 2월)

© Jorge Uzun



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텍사스는 1982년 이래로 독극물 주사로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사형시켰습니다. 현재 텍사스는 독극물 주사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입니다.

독극물 주사를 사용하면 다른 방식의 사형 집행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체의 절단, 단두로 인한 출혈, 전기의자에서의 피부 타는 냄새, 독가스나 교수형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불편한 장면과 소리들, 사형수가 무의식 중에 흘리는 배변과 배뇨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극물 주사는 사형집행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덜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극물 주사를 사용한 사형 집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윤리라는 오랜 원칙을 깨뜨리면서 국가를 위한 살인

을 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인도적인’ 사형집행 방식을 찾는 진짜 이유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형이 좀 더 인간적인 수단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정부,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형을 허락하는 대중들이 불편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 꼭 그를 고문해서 죽이는 것만 같았다. ”

엔젤 디아즈의 사형집행 현장에 있었던 오하이오 의대 조나단 그로너(2006년)



국제사회는 사형에 반대한다

전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정의의 이름 아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 Private



중국 대사관 앞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05년 7월, 홍콩.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정의로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점차적으로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21세기 현재, 전세계 모든 국가 중 2/3가 법률상 혹은 관습적으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100년 전인 20세기 초에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3개뿐이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명백합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사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엔 총회는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

의안을 찬성 104표 반대 54표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 같은 결의안에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은 여전히 사형을 존치하는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국가적인 토론을 가지고 사형에 관한 자국 법률을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사형집행은 중단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적인 사형폐지 캠페인으로부터 확장된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제도가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53개국 중 2007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7개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정당화할 때 인용하는 국가인 미국조차도 사형제도에서 꾸준히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형집행건수와 사형이 선고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뉴저지 주에서 사형이 폐지되었고 2009년 3월에는 뉴멕시코 주에서 사형폐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몇몇 주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1979년 이후로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사형이 한번 폐지되면, 다시 도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전세계 인권활동가들은 사형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인 움직임을 형성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Index: AOT 50/011/2008



2004년 8월 14일 다나조이 채터지(Dhananjoy Chatterjee)가 교수형을 당한 인도 캘커타의 알리포 중앙교도소 앞,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 AP Photo/Bikas Das



개최되는 세계사형반대의회(World Congress against Death Penalty)와 같이 의미있는 행사들이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와 같이 사형에 반대하는 국가간의 연대도 몇몇 국가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이들은 사형과 같이 국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계획적이고 냉혹하게 인간을 죽이는 방식이 아닌,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전세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2007년 유엔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가 사형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국가가 계획적이고 냉혹하게 인간을 죽이는 방식이 아닌,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최신 사형 폐지국과 존치국의 현황을 알아보려면

www.amnesty.org/en/death-penalty에 접속해보세요.

■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캠페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www.worldcoalition.org에 접속해보세요.

■ 세계 사형반대의 날인 10월 10일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www.amnesty.or.kr에 접속해 보세요.



국가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 정치적 반대를 이유로 처형된 이들, 사형을 선고 받는 아이들...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이들 중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중국

이스마엘 세미드(Ismail Semed)는 2006년 2월 8일 신장 위구르 자치 지구(XUAR,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유럼 쿼(Urumqi)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2003년 파키스탄에서 추방된 이후에 '국가 분열 기도' 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2005년 10월 31일 유럼키 고등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유죄판결에 항소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그르 인권 프로젝트(UHPR)라는 단체에 따르면 그의 항소심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 같은 일이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재판과정이 불공정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스마엘 세미드는 신문과정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범죄혐의에 대해서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위그르 인권프로젝트(UHPR)는 그의 초기 자백을 얻어내는데 고문이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마엘 세미드의 부인과 어린 두 자녀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단 10분동안 그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심장에 한 발의 총을 맞고 처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61세였던 파비아누스 티보(Fabianus Tibo), 43세였던 도밍구스 다 실바(Dominggus da Silva), 49세였던 마리누스 리우(Marinus Riwi)는 2006년 9월 21일 새벽 1시 45분에 총살되었습니다. 이들은 2000년 3월 종교적 인종적 갈등이 발생했던 센트럴 술라위시(Central Sulawesi) 포소(Poso) 지역에서 살인을 사전모의하고 대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2001년 4월에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형 장소는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팔루(Palu) 공항 근처에서 처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증거로 제시한 목격자 진술이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당시 법원 밖에는 세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돌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 세 사람의 변호인들도 살해 협박 등의 위협을 받았으며, 한 법률 고문인의 집에 폭탄이 설치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란

사형집행 당시 16세였던 아테페 라자비 사할레(Atefeh Rajabi Sahaalah)는 2004년 8월 15일 반복적으로 '정조를 무너뜨린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란 북쪽 마잔다란(Mazandaran) 지방 네카(Neka) 마을 중심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아테페 라자비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당시 그녀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도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결국 사형은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아테페 라자비는 재판 중에 냉정을 잃고 오히려 자신이 한 나이드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판사에게 소리쳤고, 항의의 표시로 머리에 썼던 두건을 던졌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판사는 그녀를 질책했고, 나중에는 "대중 앞에서 옷을 벗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당국이 아테페 라자비가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재판을 받던 시기에 그녀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신분증에는 그녀의 나이가 16세로 나와있었지만, 마잔다란 법원은 사형집행 당시 그녀가 22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법 상 범죄행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해서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법당국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신문 페이지 이란(Peyk-e-Iran)에 따르면, 교수형 집행 당시 원심을 판결했던 판사가 아테페 라자비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2007년 1월 26일 이른 시간, 당시 21세였던 나이지리아인, 이우추규 아마라 토치(Iwuchukwu Amara Tochi)와 남아프리카 출신의 35세 오케레 넬슨 말라치(Okele Nelson Malachy)가 싱가포르 창지 교도소(Singapore's Changi Prison)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우추규 아마라 토치의 사형집행을 진행하지 말라고 싱가포르 정부에게 요청했지만 이들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재판에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우추규 아마라 토치는 2004년 11월 27일에 장치 공항에서 727.02g의 헤로인을 운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약물 오용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5g 이상의 헤로인을 밀반입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에게 유죄선고를 한 판사조차도 그가 자신이 운반한 것이 헤로인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판결에서 “그가 캡슐에 헤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 스미스(그에게 약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한 사람)가 이우추규에게 약 중 헤로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알아냈는지를 판별할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2007년 5월 9일, 테네시 주에서 53세인 필립 워크맨(Philip Workman)은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핵심적인 증인이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고, 1981년 강도사건 당시 필립 워크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로널드 올리버가 사실은 동료 경찰관이 쏜 총에 의해 사고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필립 워크맨은 25년간을 사형수로 지냈습니다.

2007년 5월 4일, 미국 항소법원은 필립 워크맨이 무죄 주장을 위해 사형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명의 판사는 필립 워크맨이 ‘항소가 성공할 가능성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또 “필립 워크맨의 사형 선고 후 25년 동안 5번의 사형집행 연기가 있고나서 정부와 대중이 결말에 흥미를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다른 한 명의 판사는 의견을 달리 했습니다. 콜(Cole) 판사는 필립 워크맨이 적어도 예심을 열기에는 충분한 입증을 했고, 그 정도로만으로도 집행을 연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콜 판사는 최근 미국 항소법원에서 매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 연기를 허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는 사형에 관해서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래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사형제도,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이 사형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의 전세계적인 폐지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활동에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시작했던 1976년에는 단지 16개의 국가만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 후인 1989년에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선택의정서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전세계적 사형집행의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채택되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2009년 5월 현재 전 세계 197개의 국가 중에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단지 59개뿐입니다. 1976년 이후로 매년 거의 3개의 국가들이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0년이상 사형집행이 없어 2007년 12월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의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법적 폐지'라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009년 현재 18대 국회에는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ACT NOW!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자료집을 가지고 친구들과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작은 토론모임을 만들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영화

데드맨 워킹(팀 로빈스, 1995)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송해성, 2007)

함께 보면 좋은 책

사형수 최후의 날(빅토르 위고, 182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045호
우편번호 110-620
www.amnesty.or.kr

문서번호: ACT 50/015/2008
출판일: 2008년 9월
한국어판 출판일: 2009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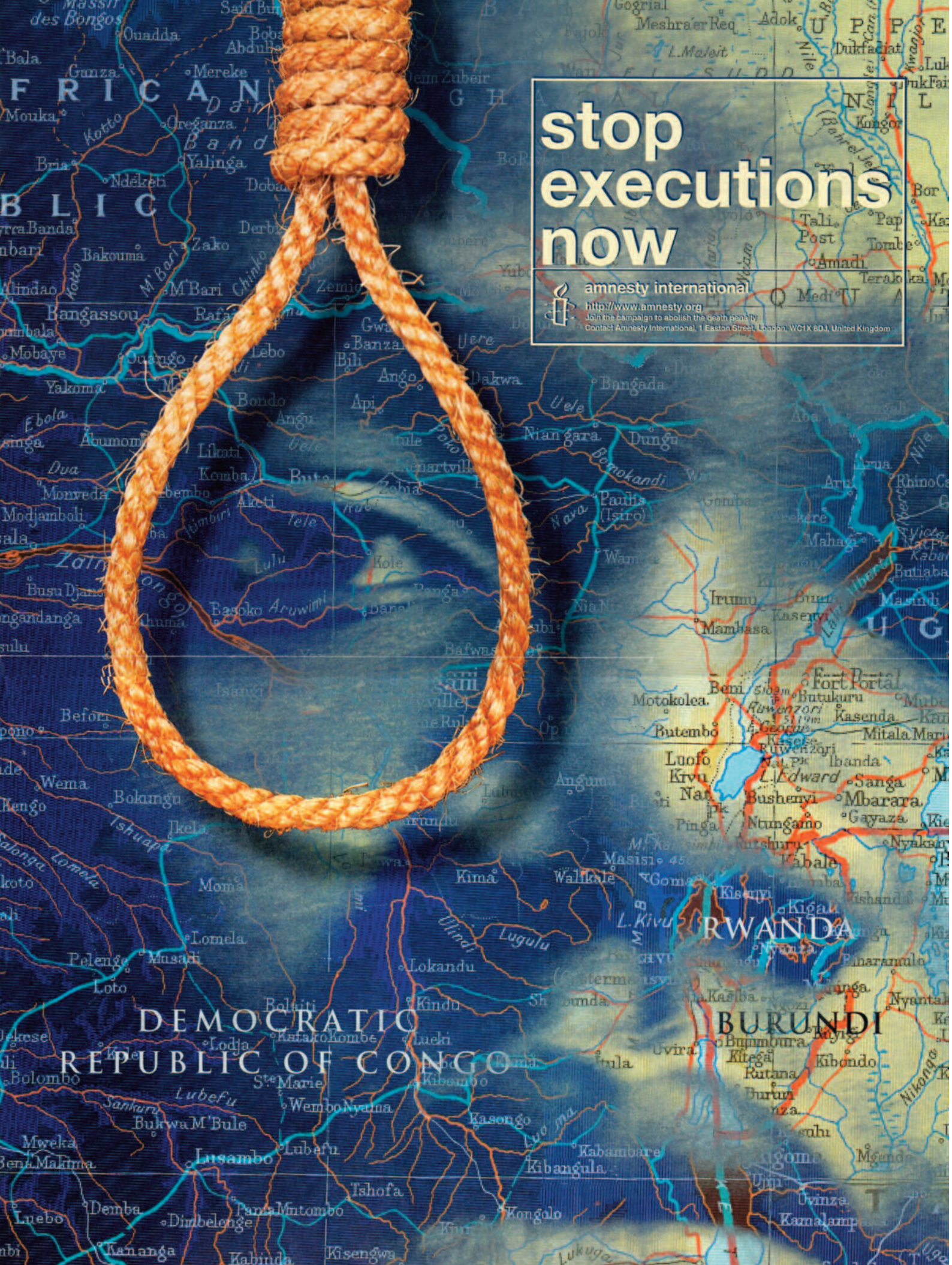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개국 넘는 지역에서 220만명 이상의 회원들과 함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문헌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조사활동과 캠페인, 로비활동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 경제적 이념, 종교에도 독립적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stop executions now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

Join the campaig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Contact Amnesty International, 1 Easton Street, London, WC1X 8DA, United Kingdom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RWANDA
BURUNDI